

# 노형관

hkroh.com / [hkroh@live.co.kr](mailto:hkroh@live.co.kr)

<작가노트>

나는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감정들.  
그 속의 희로애락을 셀프 포트레이트와 비디오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한다.

작업은 크게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다.  
과거가 마음의 극단적 상태 속에서 고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현재는 관찰자로서 세상을 관망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나의 모습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또한 나와 관계되어지는 개인적인 사건들과 주변의 환경들은 나의 감정과 함께 사진  
의 모티브로서 작용한다.

나는 개인의 감정이 일상의 호흡처럼 쉽게 잊혀져 버리는 가벼운 에피소드가 아닌  
때론 진지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억들로 남겨지기를 희망한다.  
그러기에 사진이란 매체는 더없이 좋은 기록 매체로써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게 해주  
는 회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